

무주군, 호우상황에 집중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소집... 피해 9건 긴급조치 완료

무주군이 지난 5일부터 지속되고 있는 호우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8일 새벽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소집, 각 읍면 분야별 피해상황 조사와 취약시설 및 재해위험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주문했다.



황 군수는 "이직까지 우리 군에 큰 피해는 없지만 이번 장마가 국지성 호우 행태를 보이면서 산사태나 급경사

지 붕괴, 농경지 침수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인명피해는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또 피해는 사전에 예방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전 직원 '1마을 1담당' 제도를 가동해 현장에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산, 계곡에 인접해 있는 마을과 주택, 저지대 배수로와 공사장 낙석, 산사태, 붕괴위험 지역에 대한 예찰과 피해상황 조사, 그에 따른 응급복구, 유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상황은 도로 일부 침하를 비롯해 토사 유출, 공사 현장 도로 범람 유실, 터널 내 우수유입 등 총 9건으로 안전재난과, 건설과 등 해당 부서와 읍면이 협조해 긴급복구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무주=전문선기자



진안군은 8일 국민의힘 동행의원인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을 비롯한 정운천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당 관계자, 재경향우회 등 70여명이 방문해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동행의원 진안 방문

최춘식 의원, 지역 현안해결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진안군은 8일 국민의힘 동행의원인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을 비롯한 정운천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당 관계자, 재경향우회 등 70여명이 방문해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호남동행은 정책간담회,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및 용담댐 현장 시찰 등 순서로 진행됐다.

정책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참석자와 진춘성 군수, 김광수 군의장, 박관순 의원, 신강수 의원, 정옥주 의원, 김민규 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방의료원 국비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반영(소태정 터널) 등 현안사업과 ▲약용작물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전통자원 복원사업 ▲황금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

비 진안군 통합보훈회관 건립사업 등 국가예산 사업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서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교육을 위해 전국최초로 진안에 설치된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와 전국 5위 규모의 용담댐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하루 동안의 진안군 방문 일정을 마쳤다.

진춘성 군수는 "국민의힘과 함께한 호남동행 정책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사업은 우리군에서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이번 호남동행을 통해 맺어진 인연을 계기로 동서회합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진안군에 더욱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 노인대학 특강 진행

사회적응력·건강관리능력 배양

황인홍 무주군수가 8일 무주종합복지관에서 열린 노인대학에서 "100세 시대 배움으로 당당하게!"라는 주제의 특강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황 군수는 "100세 시대에 걸맞은 사회 적응력을 기르고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해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취지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국내외 정세를 비롯한 생활 문화, 건강 등의 다양한 교양강좌를 통해 견문을 넓히고 배우는 즐거움까지 만끽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전북의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21.8% 우리 군은 33.9%에 달한다"라며 "어르신들이 신체 나이에 얽매어 보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삶을 헤쳐 새로운 세상과 만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기대수명을 고려하고 우리가



황인홍 무주군수가 8일 무주종합복지관에서 열린 노인대학에서 "100세 시대 배움으로 당당하게!"라는 주제의 특강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라 사람들이 평균 72세까지 일을 한다고 봤을 때 60대는 40대, 70대는 50대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며 "그런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건강한 정신력과 체력, 그리고 품위이고 이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곳이 바로 노인대학"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기자

무주군, 공유재산 매각처분·주민 재산권 행사

무주군이 보존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공유재산을 매각 처분에 주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공유재산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미활용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정리한다는 취지다.

공유재산 실태 조사로 미활용 공유재산을 발굴해 사업 부서를 대상으로 활용 의견을 조희 후 장래 활용 및 보존 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에 대해 적극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유재산이 사유지로 둘러싸여 있거나 좁고 긴 모양의 공유재산 또는 경작용으로 5년 이상 대부 중인 공유재산 등 토지이용 불편해소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공유재산을 중심으로 우선 매각 검토할 방침이다.

공유재산 매수 신청은 무주군청 2층 재무과로 방문 또는 유선(☎ 063-320-2275) 접수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재산은 올해 8월까지 인접지 및 현장 조사, 관계 법령 검토, 관계 부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매각을 결정해 감정 평가 결과에 따라 매수 신청인에게 매각한다.

앞서 무주군은 올해 상반기에도 4필지 466㎡(6,780만 원)를 매각한 바 있다. 올해 20여 필지를 매각해 세입 3억 원 정도의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재무과 재산관리팀 신준교 팀장은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민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고 매각 수입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진춘성 진안군수, '제1회 노인문화발전 대상' 수상

진안군은 진춘성 군수가 8일 서울 국가원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도전프로젝트 시상식에서 '도전 한국인 기초자치단체장' 부문에서 '제1회 노인문화발전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도전한국인본부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는 부철한 사명감과 도전정신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문화발전에 기여한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그 위상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수여하는 상으로 그 대상자로 진춘성 진안군수가 선정된 것이다.

진 군수는 지역사회에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을 구축하여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및 노인돌봄서비스 강화 ▲노인의 경제적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등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 점에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이·미용권 지원 등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과 노인의 정서 및 심리 지원까지도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보훈안보단체인 간담회 개최

장수군은 8일 장영수 군수 상이군경 이영수 회장, 진물군경 유족 한중화 회장 등 8개 보훈안보단체 대표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희생에 대한 감사표시와 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정책,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훈 사업에 관한 다양한 의견 교환 및 향후 보훈정책에 대한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

장영수 군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들의 공헌과 노고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보훈정책에 관한 단체장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군에서도 유공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군은 현재 국가유공자 가족에 2021년도부터 호국보훈수당을 매월 1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장수=고판호기자

진안군, 2021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기관 선정

진안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군은 신속집행 분야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크고 군민들의 경제활동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비·투자 분야 예산 집행실적에서 지난 1분기 목표액 대비 115.5% 달성한 데 이어, 2분기에도 124.6%를 달성하며 전북도 내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신속집행률은 57.45%를 기록하며 행안부 목표율 55.1%를 초과 달성해 관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상반기 평가는 신속집행 목표 달성 실적, 분기별 소비·투자 집행실적, 일자리사업 집행실적 등 3가지 평가지표를 합산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의미가 크다.

/진안=우태만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